



화장품 (Positive)

미국 화장품 시장 내 한국 점유율 확대 추세 지속

▶ Analyst 한유정 yujung.han@hanwha.com 02-3772-7693 / RA 고예진 yejinko@hanwha.com 02-3772-7701

미국 화장품 수입 전체 부진

2026년 3월 미국의 화장품 수입 금액은 6.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1월 -17%, 2월 +1%에 이어 3월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며 월별 흐름은 개선되고 있다. 다만 1분기 누적 기준 미국의 전체 화장품 수입 금액은 17.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했다. 지난해 1분기 기저가 높았고, 프랑스·이탈리아·중국·일본 등 주요 수입국의 부진이 이어진 영향이다.

한국 점유율 확대는 지속

반면 한국 화장품 수입은 전체 시장 대비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2026년 3월 한국 화장품 수입 금액은 1.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다. 1월에는 -5% 감소했으나, 2월 +12%, 3월 +16%로 성장률이 빠르게 회복됐다. 1분기 누적으로도 한국 화장품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하며, 전체 수입 시장 성장률 -5%를 크게 상회했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의 상대적 강세가 더욱 뚜렷하다. 1Q26 미국의 국가별 화장품 수입 금액은 한국 +7%, 캐나다 +5%, 멕시코 +20%, 독일 +13%, 영국 +3%를 제외하면 주요 화장품 강국 대부분이 역성장했다. 프랑스 -19%, 이탈리아 -23%, 중국 -12%, 일본 -18%로 부진했고, 스웨덴은 -80% 감소했다.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전통적인 프리미엄 화장품 수입국임에도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미국 수입 시장 내 수요가 기존 유럽 프리미엄 중심에서 한국 혹은 북미·일부 인접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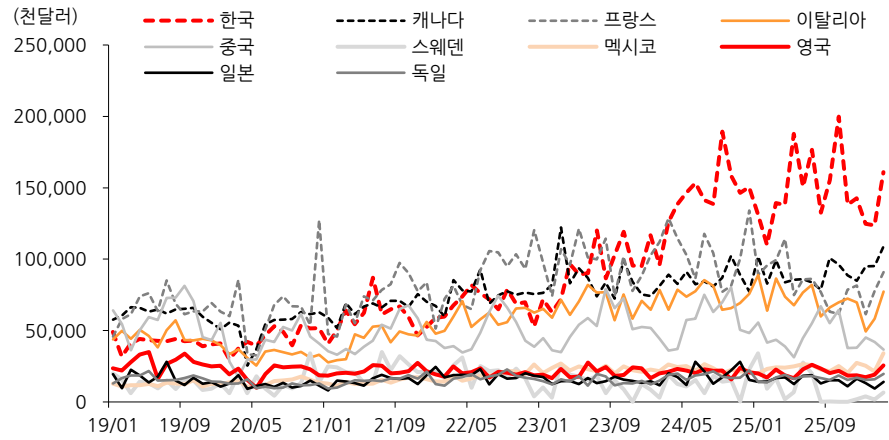
한국 화장품의 미국 수입 시장 내 지위는 이미 1위권을 넘어 절대적인 선두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비중은 추가로 확대되고 있다. 2026년 1월과 2월 한국의 미국 화장품 수입 비중은 각각 23%였고, 3월에는 24%까지 상승했다. 미국 화장품 수입 시장 내 한국 화장품의 존재감은 확산 초기를 지나 주류화 이후의 침투율 상승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미국에서 검증된 한국 화장품, 글로벌 확장 본격화

2026년 1~4월 한국 화장품 수출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1월 -6%에서 3월 +32%, 4월 +16%로 회복됐고, 영업일수가 적었던 2월을 제외하면 매월 역대 최대 수출 금액을 경신하고 있다. 대미 수출도 3월 +26%, 4월 +8% 성장하며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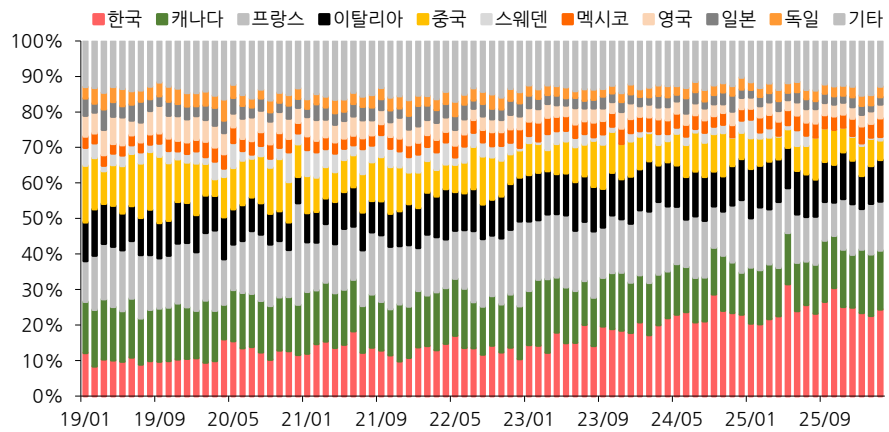
미국은 한국 화장품의 최대 수출국이자 글로벌 확장의 핵심 레퍼런스 시장이다. 미국에서의 성과는 단순 매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소비자 시장에서 미국 내 흥행은 브랜드의 제품력과 대중성을 입증하는 지표로 작용하고, 이후 유럽·일본·동남아 등 신규 국가 진출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 화장품의 수출 성장은 미국향 수출 호조를 넘어 글로벌 침투율 상승 국면으로 확장되고 있다. 미국에서 검증된 제품력, 빠른 SKU 확장, 온라인·MBS 채널 대응력을 바탕으로 한국 화장품의 국가 확장과 글로벌 점유율 상승은 지속될 전망이다.

[그림1] 미국의 국가별 화장품 수입 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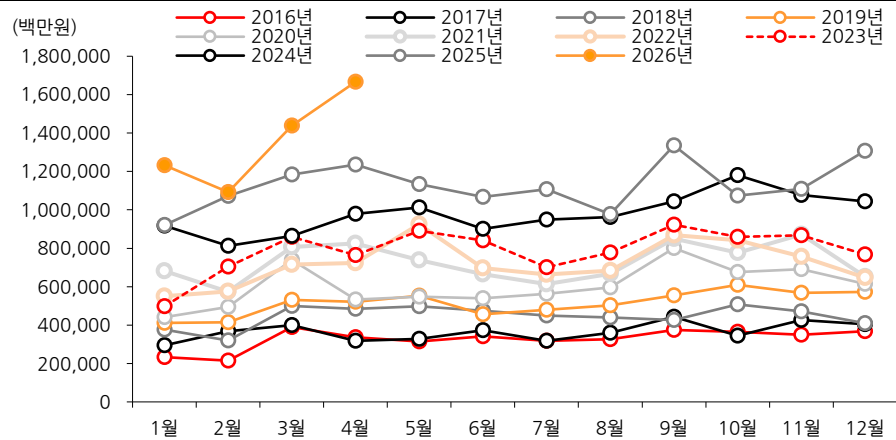
자료: U.S. Census Bureau, USA Trade Online,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미국의 국가별 화장품 수입 금액 비중 추이



자료: U.S. Census Bureau, USA Trade Online,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월별 화장품 수출 금액 추이



자료: 관세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공표일: 2026년 05월 06일)

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에서 다른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한유정, 고예진)

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른 종목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종목 투자등급]

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년간 +15% 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절대수익률 -15~+15%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보유) 의견을, -15%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에 따르며,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의견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

[산업 투자의견]

당사는 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해당 업종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Positive(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년간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utral(중립적) 의견을, 과거 수익률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gative(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수익률 전망은 해당 산업 내 분석대상 종목들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릅니다.

[당사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부여 비중]

(기준일: 2026년 03월 31일)

투자등급	매수	중립	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중	90.7%	9.3%	0.0%	100.0%